

2021-01

경제 브리프

2021. 01. 12.

-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코로나 재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건설투자도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주춤한 모습
 - 2020.3분기 2.1%(전기비) 반등하였던 GDP가 4분기에는 0.6%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어 2020년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유지
- 향후 글로벌 경기 개선폭 확대,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 민간소비 반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국내 GDP 성장률은 2020년 -1.1%에서 2021년 3.0%로 회복할 전망
 - 2021년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예: 효과적인 백신 접종,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재정지출 확대)과 하향 조정될 위험(예: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경제활동 제한)이 서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판단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2020년(0.5%) 보다 높아지고, 취업자는 지난해 18.3만명 감소에서 올해 12.4만명 증가로 개선될 전망
- 유가상승·원화강세가 수출개선 효과를 상쇄하면서 경상수지는 지난해 수준의 흑자(2020년 716억달러→2021년 712억달러)를 유지하고, 세수 여건 개선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폭(84.0조원→75.4조원)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종 연구위원(02-2173-0568), 김진희 선임연구원(02-2173-0585)
이다은 연구원(02-2173-0578),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목 차



I.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1
II. 2021년 경제 전망	2
III. 전 세계 코로나 백신 동향과 재확산 현황	6
[붙임 1] 생산활동·설비투자 동향	10
[붙임 2] 대외거래 동향	12
[붙임 3] 소비·고용·물가 동향	14
[붙임 4] 건설·부동산시장 동향	16

I.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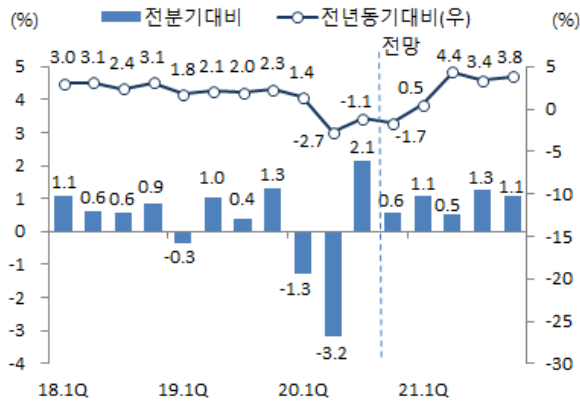
■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가 감소하고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도 주춤한 모습

- 수출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제조업 생산·투자 재개, 반도체 등 IT 업황 개선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시현
 - * 통관 수출(전년동월대비, %): 20.10월 -3.8 → 11월 4.1 → 12월 12.6
 - * 글로벌 교역량(전년동월대비, %): 20.5월 -17.6 → 9월 -1.3 → 10월 -1.1
 - * 글로벌 제조업 PMI(기준선=50): 20.4월 39.6 → 11월 53.8 → 12월 53.8
- IT 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자본재 수입)도 크게 증가
 - * 자본재 수입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20.10월 13.4 → 11월 18.1 → 12월 23.3
 - * 12월 자본재 수입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155.3%),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294.4%) 등 IT 품목이 크게 증가
- 반면, 10월 이후 소폭 감소하던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2월에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
 - *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2.8~21.1.17일까지 방역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
 -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매판매(10~11월 중 전월대비 2개월 연속 감소), 소비자심리지수(12월 8.1p 하락), 소상공인 매출(20.12.28~21.1.3일 전년동기대비 34% 급감) 등 주요 소비지표가 악화
- 부동산시장 규제로 주택착공물량이 감소하는 등 건설투자도 위축
 - * 주택착공(전년동기대비, %): 20.2분기 18.6 → 3분기 40.7 → 11~12월 -16.0

■ 2020.3분기 2.1%(전기비) 반등하였던 GDP가 4분기에는 0.6%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어 2020년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유지

-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경기선행·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동반 상승하고 제조업 가동률도 개선되고 있으나, 지난해 4분기 중 경기 개선폭은 3분기보다 둔화된 것으로 추정
 -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20.5월 99.4 → 10월 101.8 → 11월 102.5
 -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4월 68.1 → 10월 73.8 → 11월 73.8

2021년 한국 분기별 GDP성장률 전망



자료: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글로벌 제조업 PMI와 한국 수출(통관)



자료: Bloomberg,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 2021년 경제 전망

1. 경제 성장률

-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확장적(완화적) 재정·통화정책 지속, 민간소비 반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국내 GDP 성장률은 2020년 -1.1%에서 2021년 3.0%로 회복할 전망

① **[민간소비]** 상반기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복지 분야 재정지원 강화, 서비스 소비의 완만한 회복, 2020년 급감(-4.4%)에 따른 기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2020년 -4.4% → 2021년 3.1%)

- * 2021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10.6% 증액 편성
- * 정부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5.6조원), 코로나19 방역 강화(0.8조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2.9조원) 등을 위해 9.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2.11일부터 지급할 예정

② **[정부소비]** 확장적 재정운용이 민간 수요를 상당폭 뒷받침하겠으나, 정부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전년대비 둔화(2020년 5.5% → 2021년 4.0%)

- * 정부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 2017년 3.6% → 18년 7.1% → 19년 9.5% → 20년 9.1% → 21년 8.9%(추경 기준 +0.6%)

③ **[설비투자]**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뤄졌던 신규 투자가 재개되고, 한국판 뉴딜

사업(디지털·그린)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 2020년(6.5%)에 이은 양호한 증가세(2020년 6.5% → 2021년 4.1%)

④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9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공공주택 건설 확대와 SOC 예산 증액 편성(전년대비 +14.2%)으로 완만하게 증가(2020년 -0.1% → 2021년 1.2%)

* 정부는 철도·도로 등 SOC 관련 예산 46.2조원 중 1분기에 32.0%(14.8조원), 상반기에 62.0%(28.6조원)을 집행할 예정

⑤ **[수출(재화·서비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정상화(글로벌 GDP 성장률 2020년 -3.7% → 2021년 5.7%)되면서 글로벌 교역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2020년 -3.2% → 2021년 2.9%)

* 통관 수출 증가율: 2020년 -5.4% → 2021년F 8.7%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12월말 IB 전망치 평균)

	단위	2020				2021				2019	2020F	2021F
		Q1	Q2	Q3	Q4F	Q1F	Q2F	Q3F	Q4F			
글로벌	전년대비, %	-	-	-	-	-	-	-	-	3.1	-3.7	5.7
미국	전기대비 연율, %	-5.0	-32.9	33.1	5.1	2.4	5.3	4.2	3.4	2.3	-3.5	4.4
유로존	전기대비 연율, %	-13.6	-40.3	38.1	-8.9	4.9	7.4	7.3	3.6	1.2	-7.2	4.8
일본	전기대비 연율, %	-2.2	-28.1	21.4	5.5	1.0	4.8	4.1	2.1	0.7	-5.2	3.0
중국	전년동기대비, %	-6.8	3.2	4.9	6.0	18.1	7.3	5.7	5.3	6.1	2.1	8.4

주: 1) 음영부분은 전망치

자료: 국제금융센터,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021년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예: 효과적인 백신 접종,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재정지출 확대)과 하향 조정될 위험(예: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경제활동 제한)이 서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판단

- 미국 민주당이 1.5일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압승하여 Blue Wave(민주당이 행정부와 상하원을 장악)가 실현되어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
- 냉장보관 등 기술적인 문제로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각국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

* 영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사망자가 각각 6만명·1만명 이상으로 늘어 3차 전국 봉쇄조치에 돌입(1.4일), 독일은 전국 봉쇄조치를 1월말까지 연장(1.5일), 일본은 도쿄도 등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효(1.8일)

2. 소비자물가

■ 2021년 CPI 상승률은 1.3%로 2020년(0.5%)보다 높아질 전망

-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측 하방압력 완화에 기인
 - 다만, 무상교육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표물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9.9월 3학년 → 20.4월 2학년으로 확대 → 21년 1학년 까지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백신 접종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로 국제유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2021년 CPI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1.3%로 소폭 상향 조정

3. 고용

■ 2021년 고용시장은 취업자가 12.8만명 늘어 2020년(18.3만명 감소)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진정과 전년도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도소매·숙박·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수출 회복과 가동률 상승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부진 완화, 주요 기업들의 신규 채용 재개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4. 경상·재정수지

■ 2021년 경상수지 흑자는 712억달러(GDP 대비 4.2%)로 2020년(716억달러, 4.6%)과 비슷한 규모로 전망

- 유가 상승, 원화 강세가 수출 개선 효과를 상쇄

■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75.4조원(GDP 대비 3.8%) 적자로 2020년(84.0조원 적자, 4.4%)보다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

- 명목 경제성장률 회복 등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

5. 부동산시장

■ 2021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2.71%로 2020년(8.35%)보다 둔화될 전망

-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보유세·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 다년간 급등에 따른 관망 수요로 주택가격 상승폭은 제한

*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연누적): 2018년 2.4% → 19년 0.6% → 20.1~12월 6.4%

국내 주요 거시지표 전망

항목	단위	연간			2020 분기			
		2019	2020F	2021F	1/4	2/4	3/4	4/4F
GDP(실질)	전기대비, %	2.0	-1.1	3.0	-1.3	-3.2	2.1	0.6
	전년동기대비, %				1.4	-2.7	-1.1	-1.7
민간소비	전기대비, %	1.7	-4.4	3.1	-6.5	1.5	0.0	0.4
	전년동기대비, %				-4.8	-4.0	-4.4	-4.5
정부소비	전기대비, %	6.6	5.5	4.0	1.4	1.1	0.2	1.5
	전년동기대비, %				6.8	6.1	4.6	4.3
설비투자	전기대비, %	-7.5	6.5	4.1	0.2	-0.5	8.1	-3.1
	전년동기대비, %				7.3	4.1	10.6	4.4
건설투자	전기대비, %	-2.5	-0.1	1.2	0.5	-1.5	-7.3	6.7
	전년동기대비, %				4.2	-0.1	-1.0	-2.5
수출(재화, 서비스)	전기대비, %	1.7	-3.2	2.9	-1.4	-16.1	16.0	2.5
	전년동기대비, %				5.6	-13.0	-3.4	-1.4
수입(재화, 서비스)	전기대비, %	-0.6	-4.1	1.5	-3.6	-6.7	5.6	0.9
	전년동기대비, %				0.9	-8.5	-4.6	-4.0
수출(통관)	전년동기대비, %	-10.4	-5.4	8.7	-1.8	-20.3	-3.4	4.2
수입(통관)	전년동기대비, %	-6.0	-7.2	8.2	-1.8	-15.9	-8.9	-1.9
재정수지 ¹⁾	조원	-12.0	-84.0	-75.4	-	-	-	-
	GDP대비, %	-0.6	-4.4	-3.8	-	-	-	-
경상수지	억달러	600	716	712	133	58	241	282
	GDP대비, %	3.6	4.6	4.2	-	-	-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0.4	0.5	1.3	1.2	-0.1	0.6	0.4
실업률(SA)	%	3.8	3.9	3.9	3.7	4.2	3.8	4.0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만명	30.1	-18.3	12.8	28.8	-40.7	-31.4	-29.8
전국 주택매매가격	전기말대비, %	0.24	8.35	4.24	1.29	0.85	2.47	3.50
기준금리	기말, %	1.25	0.50	0.75	0.50	0.50	0.50	0.50

주: 1) 통합재정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I. 전세계 코로나 백신 동향과 재확산 현황

1.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

■ 화이자(Pfizer/BioNTech), 모더나(Moderna),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Oxford)사 등 주요 글로벌 제약사는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주요 선진국의 긴급 승인을 거쳐 백신 보급을 개시

- 현재까지 화이자가 긴급사용 승인된 국가는 영국(12.2일), 미국(12.11일), 캐나다(12.9일), 세계보건기구(12.31일), 스위스(12.19일, 조건부승인), 유럽(12.21일, 조건부승인)이며, 모더나가 긴급사용 승인된 국가는 미국(12.18일), 유럽(1.6일, 조건부승인)
 - 화이자와 모더나는 제조공정이 빨라 대량 유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으나, 유통·보관이 어렵고 주성분인 RNA가 안정적이지 못한 단점을 지님
- 아스트라제네카가 긴급사용 승인된 국가는 현재 영국(12.30일) 외에는 없으며 유럽의약품청(EMA)과 한국 식약처가 허가를 심사 중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극저온 유통·보관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방률이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비해 낮고 변동성도 큰 것으로 알려짐
- 이외에 3개 중국 제약사(Sinovac, CanSino, Sinopharm)와 1개 러시아 제약사(Gamaleya)가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승인을 거쳐 주로 자국내 배포(중국, 러시아 이외 국가의 경우 일부 개도국에만 배포)

주요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

	개발단계	보관온도	효과	장점	단점
화이자	상용화	-70℃	95%	제조 용이	초저온 유통·보관 필요
모더나	상용화	-20℃(6개월) 2~8℃(3개월)	95%		
아스트라제네카	상용화	2~8℃	70%	높은 안정성	효과의 변동성 큼
노바백스	임상3상	2~8℃	-	부작용 최소화	단백질 제조 복잡, 개발이 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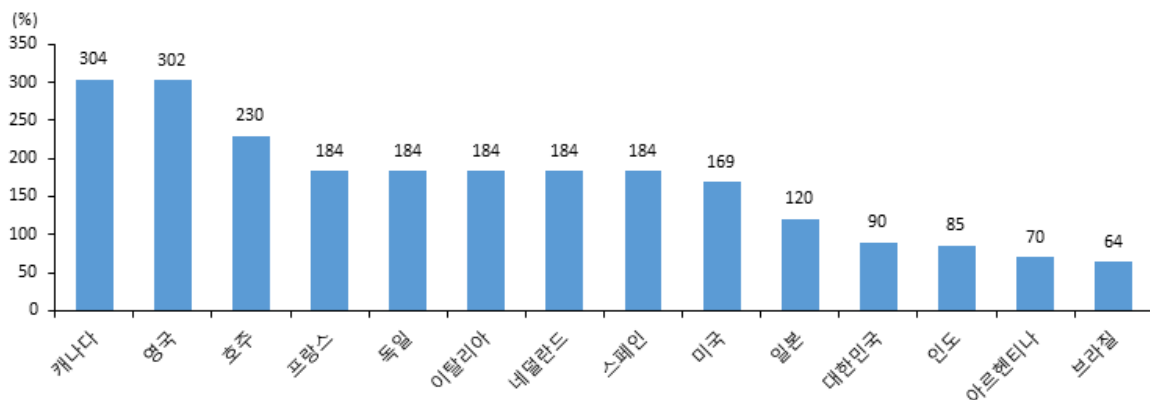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 코로나 백신 계약 현황

■ 다수 국가들이 국내 인구의 1~3배에 해당하는 백신 물량을 확보

- 전 세계적으로 83.5억개의 백신 보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접종할 수 있는 수량(대부분 백신은 2회 접종)
 - 캐나다(303.5%)와 영국(302.2%)은 인구 대비 약 3회분의 접종 물량을 확보했으며, 뉴질랜드(246.8%), 호주(229.9%)에 이어 EU 27개국(각 183.5%)과 미국(169.0%), 일본(119.9%) 등이 인구당 1회분 이상의 물량을 확보
 - 코로나 확진자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90.1%)과 중국(15.7%) 등은 백신 확보 상태가 인구수 대비 1회분 이내

주요국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계약 현황 (2021.1.11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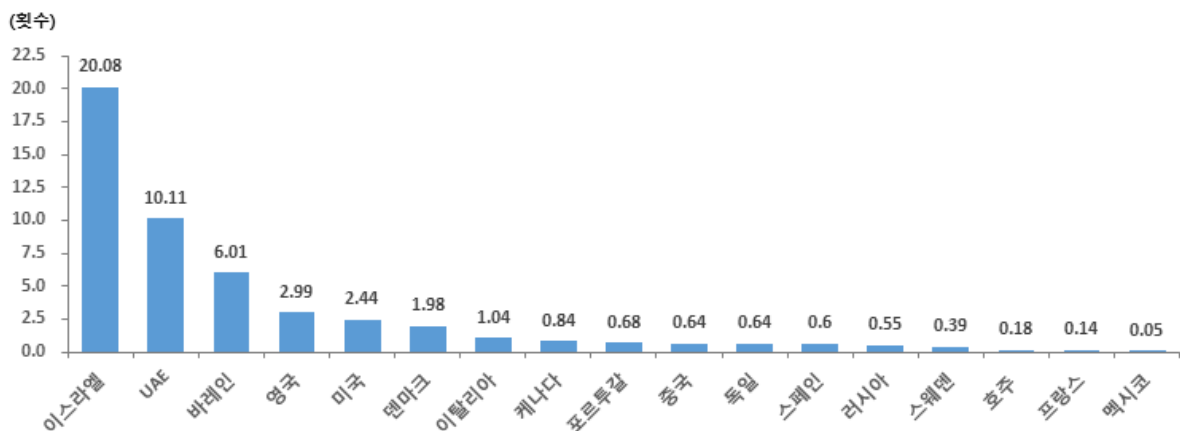
■ 부작용에 대한 우려, 유통·보관상의 어려움, 국가별 의료시스템 미비 등으로 실제 백신 접종은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진행

- 국가간 백신 공급 계약 차이와 초저온 유통·보관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이 2022년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
 - * 백신 접종이 배송·보관 단계의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우선적인 1차 접종을 위해 임상단계에서 3~4주였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2회차 접종 간격을 최대 12주로 늘려 승인(12.30일)
- 코로나 확산세가 심한 국가(예: 영국, 미국)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백신 접

종을 빠르게 시작한 반면, 확산세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국가(예: 호주, 대만)의 경우 충분한 백신 확보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유보

- * 이스라엘(20.12.20일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은 충분한 백신 확보와 안정성 홍보 등에 힘입어 21.1.10일 기준 인구 100명당 20.1회분을 투약하며 1위를 차지
- *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안전성·효능 검증, 수송·유통·피해보상 계획 점검 등을 위해 2월 중순~3월 중 백신을 접종할 계획
- 1.11일 현재 인구 100명당 코로나 백신 접종 실적은 이스라엘(20회)을 제외하고 대부분 2회 내외

주요국의 인구 100명당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 (2021.1.11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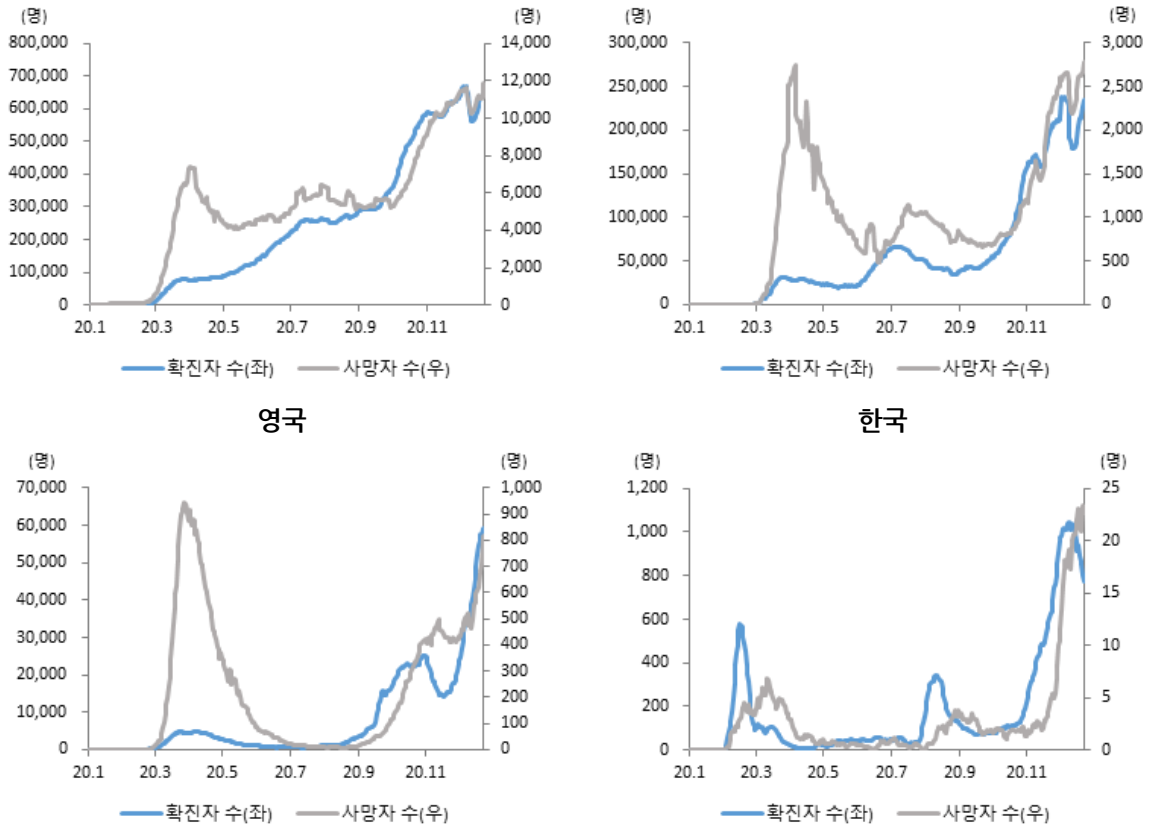
4. 코로나 재확산 현황

■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에 성공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계절적 영향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어 각국은 자국민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를 강화

- 전 세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작년 4월 1차 유행 시 6만명, 7월 2차 유행 시 20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 증가하여 2020.11월 50만 명 이상 발생
 - 일평균 사망자 수는 1,2차 유행 기간 동안 비슷한 수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1차 4천명, 2차 5천명), 3차 유행에서는 증가하는 추세
 - * 전 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20.4.1일 73,938명 → 7.1일 154,565명 → 11.1일 519,207명 → 2021.1.10일 790,455명
 - * 전세계 일일 신규 사망자수: 11.1일 7,072명 → 1.10일 12,454명

- 영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사망자가 각각 6만명·1만명 이상으로 늘어 3차 전국 봉쇄조치에 돌입(1.4일)하고, 일본이 도쿄도 등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효(1.8일)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

지역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
전 세계 미국



주: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CE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1 | **생산활동·설비투자 동향**

■ 11월 광공업생산은 수출 개선과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대비 0.3% 증가

- 반도체(+8.0%)는 모바일·PC 수요 확대,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영향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증가
- 자동차(-8.8%)는 한국GM의 파업, 유럽의 섣다운 영향으로 생산이 축소
- 제조업 재고/출하비율(107.4%)은 1차금속, 자동차 등의 재고(-1.2%)가 감소하고,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출하(2.8%)가 늘어 1.6%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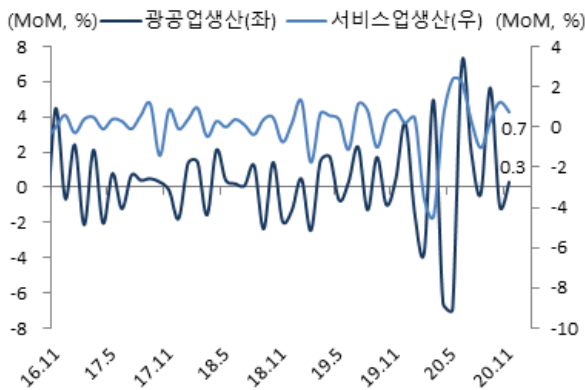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7% 증가

- 숙박·음식업(-2.7%)은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격상(11.30일)됨에 따라까지 감소로 전환
- 금융·보험(+4.6%)은 주식거래 급증, 대출확대에 따른 금융업 호조로 증가

■ 경기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 연속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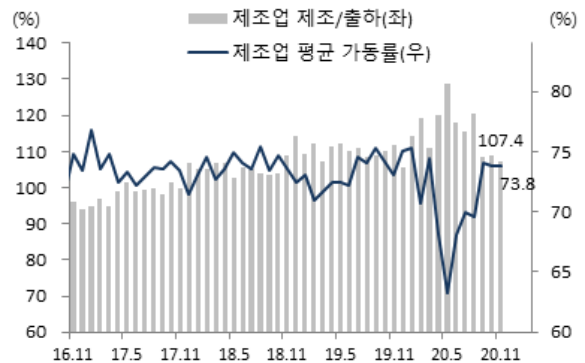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3.6% 증가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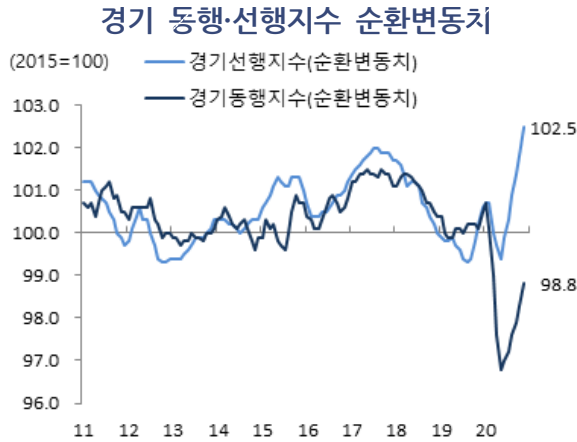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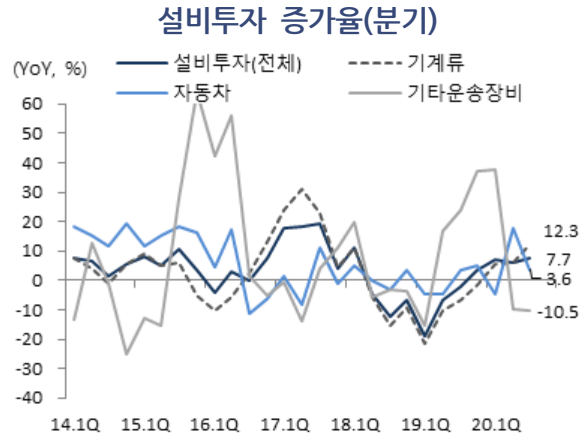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재고/출하비율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요 생산활동·설비투자 지표

항목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7	2018	2019	19.4/4	20.1/4	2/4	3/4	20.8월	9월	10월	11월
GDP 성장률	전기대비, %	-	-	-	1.3	-1.3	-3.2	2.1	-	-	-	-
	전년동기대비, %	3.2	2.9	2.0	2.3	1.4	-2.7	-1.1	-	-	-	-
민간소비	전기대비, %	-	-	-	0.7	-6.5	1.5	0.0	-	-	-	-
	전년동기대비, %	2.8	3.2	1.7	1.9	-4.8	-4.0	-4.4	-	-	-	-
정부소비	전기대비, %	-	-	-	1.8	1.4	1.1	0.2	-	-	-	-
	전년동기대비, %	3.9	5.3	6.6	6.5	6.8	6.1	4.6	-	-	-	-
설비투자	전기대비, %	-	-	-	2.6	0.2	-0.5	8.1	-	-	-	-
	전년동기대비, %	16.5	-2.3	-7.5	-2.0	7.3	4.1	10.6	-	-	-	-
건설투자	전기대비, %	-	-	-	8.0	0.5	-1.5	-7.3	-	-	-	-
	전년동기대비, %	7.3	-4.6	-2.5	2.6	4.2	-0.1	-1.0	-	-	-	-
광공업 생산	전기대비, %	-	-	-	1.1	0.1	-7.1	5.7	-0.4	5.6	-1.1	0.3
	전년동기대비, %	2.5	1.5	-0.1	2.2	5.1	-5.1	0.9	-2.7	8.2	-2.0	0.5
서비스업 생산	전기대비, %	-	-	-	0.7	-3.0	-1.5	1.9	-1.0	0.3	1.2	0.7
	전년동기대비, %	1.9	2.3	1.4	1.9	-1.1	-3.4	-1.7	-3.8	0.1	-2.5	-1.4
제조업 가동률	기간평균, %	73.5	73.8	73.2	74.1	73.5	66.5	71.2	69.6	74.0	73.8	73.8
재고/출하 비율	기간평균, %	99.3	106.0	109.8	109.1	114.8	122.2	114.7	120.5	108.6	109.0	107.4
설비투자	전기대비, %	-	-	-	4.3	-3.0	5.6	-0.2	-4.3	7.8	-3.2	3.6
	전년동기대비, %	14.4	-3.6	-6.2	3.7	7.0	6.3	7.7	-1.6	17.0	-0.9	5.7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2 | 대외거래 동향

■ 12월 수출은 글로벌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 수출 물량(-5.9%)은 감소했으나 단가(+19.6%)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등
- 품목별로는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가 회복세를 견인
 - 선박(+105.9%)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통관이 재개되며 증가
 - 무선통신기기(+39.8%)는 부품 수출 호조, 화웨이의 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반사효과로 확대
 - 반도체(+30.0%)는 글로벌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재개되고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확대되어 수출이 호조세
- 국가별로는 유럽,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개선
 - 對EU 수출(+26.4%)은 진단키트 등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차부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증가
 - 對미국 수출(+11.6%)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자동차·반도체·차부품 수요가 늘어 4개월 연속 호조세
 - 對중국 수출(+3.3%)은 중국의 소비·생산·투자가 회복세로 반도체·무선통신·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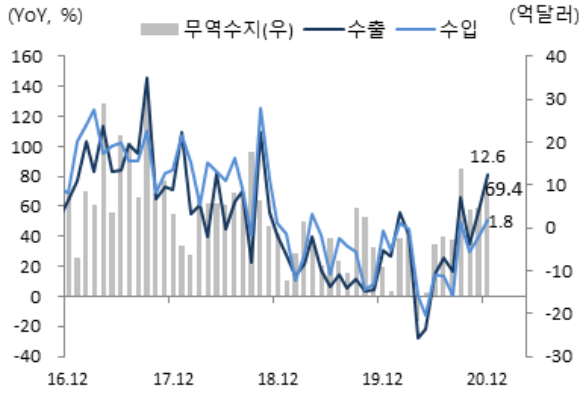
■ 12월 수입은 저유가 장기화로 1차 상품(-21.5%)이 줄었으나, 무선통신기기 부품, 메모리 등 중간재(+4.1%)와 반도체 등 자본재(+23.3%)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주요 대외거래 지표

항목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1/4	2/4	3/4	4/4	20.9월	10월	11월	12월
GDP 수출 (재화·서비스)	전기대비, %	-	-	-	-1.4	-16.1	16.0	-	-	-	-	-
	전년동기대비, %	4.0	1.7	-	5.6	-13.0	-3.4	-	-	-	-	-
수출	전년동기대비, %	5.4	-10.4	-5.4	-1.8	-20.3	-3.4	4.2	7.2	-3.8	4.1	12.6
수입	전년동기대비, %	11.9	-6.0	-7.2	-1.8	-15.9	-8.9	-1.9	1.6	-5.6	-1.9	1.8
무역수지	억달러	697	389	456	87	20	162	187	85	58	59	69
경상수지	억달러	775	600	-	133	58	241	-	101	117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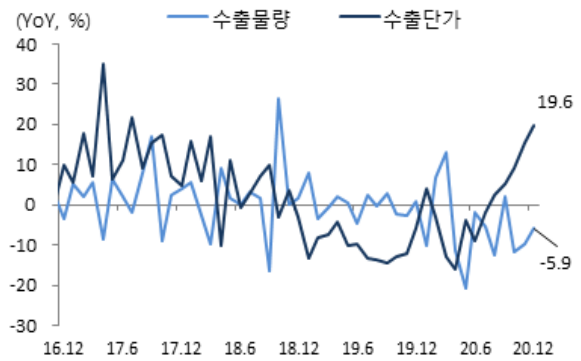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월간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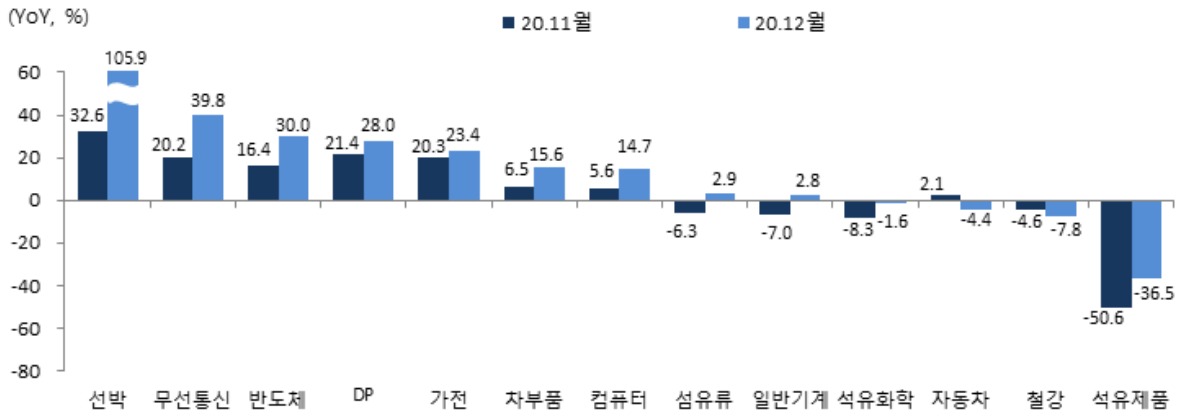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출 물량과 단가



자료: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품목별 수출 증가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역별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

	수출 전체	중국	ASEAN (베트남)	(베트남 제외)	미국	EU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CIS	동구권	
20-01	-6.6	-11.0	9.2	1.4	16.0	-7.6	-16.2	-7.0	-30.5	-9.7	-13.9	4.9	-2.4
20-02	3.6	-7.4	5.6	9.9	1.5	9.0	-1.1	-1.4	11.1	0.0	14.3	12.1	16.8
20-03	-1.7	-7.0	-4.1	-1.6	-6.6	15.4	9.1	9.9	-26.0	7.7	-10.8	-6.0	4.6
20-04	-25.6	-18.3	-33.5	-35.3	-31.8	-14.3	-20.0	-12.8	-54.4	-20.6	-59.8	-42.2	-8.8
20-05	-23.8	-2.5	-30.0	-20.1	-39.3	-29.4	-22.6	-30.2	-53.9	-25.6	-71.9	-35.2	-30.0
20-06	-10.9	9.7	-11.0	-2.3	-19.5	-8.3	-17.0	-18.2	-49.1	-21.9	-54.1	-2.9	-25.8
20-07	-7.1	2.5	-14.7	-0.4	-29.7	7.9	-11.2	-21.5	-18.7	-24.8	-42.4	-20.6	-12.0
20-08	-10.3	-3.1	-17.9	-8.4	-28.5	-0.6	-3.0	-21.4	-33.4	-20.4	-33.2	-25.6	-0.2
20-09	7.2	8.2	4.2	13.6	-7.3	23.2	15.4	-6.3	-27.7	-9.2	28.1	-16.6	30.6
20-10	-3.8	-5.8	-6.4	7.1	-21.4	3.2	9.4	-18.8	-17.8	-18.8	-6.5	0.8	3.9
20-11	4.1	1.2	6.4	11.2	0.7	6.8	24.6	-12.1	5.2	-20.7	10.2	-34.1	17.9
20-12	12.6	3.3	19.6	35.8	2.9	11.6	26.4	1.4	20.0	-32.9	16.8	-5.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3

소비·고용·물가 동향

■ 11월 소매판매는 의류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9% 감소

- 의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출이 줄어 11.0% 감소
 - * 정부는 2020.11.19일~12.2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 단계로 격상
- 자동차는 전월 신차 출시와 프로모션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1.2% 감소
- 12월 소비자심리지수(89.8)는 코로나 재확산세로 가계 수입 전망이 악화되어 8.1p 급락
 - *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20.12.25일 1,23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 11월 취업자는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9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 -27.4만명)

- 서비스업(-25.7만명)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위축되어 감소
- 제조업(-11.3만명)은 수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연기로 감소세
- 고용형태별로는 임시(-5.4만명)·일용직(-11.4만명)의 고용 부진이 지속
- 실업률(계절조정, 4.1%)은 고용 충격이 장기화되어 2개월 연속 4%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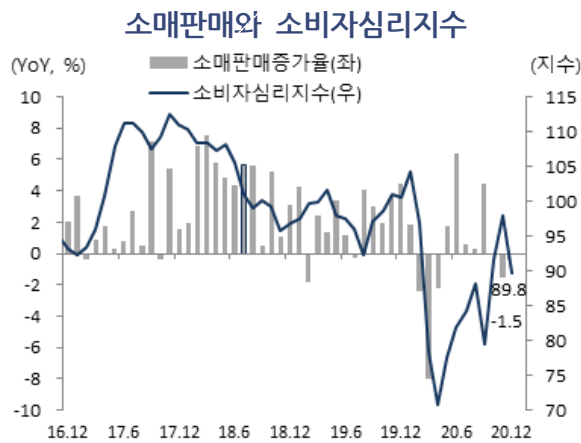
■ 12월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와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5% 상승에 그침

- 농축수산물(+9.7%)은 무, 배추를 중심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
- 공공서비스(-2.0%)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고1 무상교육이 추가 시행된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
- 석유류(-12.6%)는 지난해 대비 국제유가가 낮게 유지됨에 따라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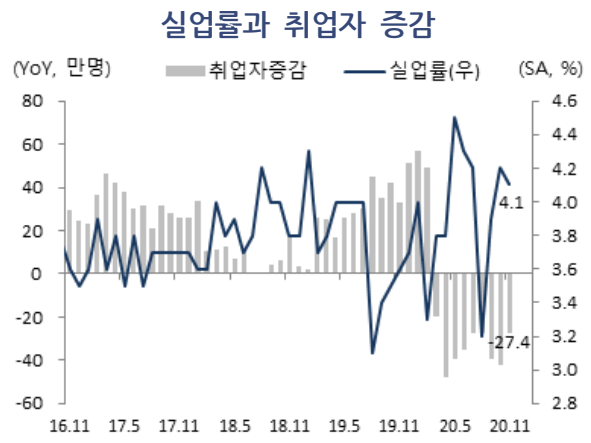
주요 소비·고용·물가 지표

항목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1/4	2/4	3/4	4/4	20.9월	10월	11월	12월
GDP 민간소비	전기대비, %	-	-	-	-6.5	1.5	0.0	-	-	-	-	-
	전년동기대비, %	3.2	1.7	-	-4.8	-4.0	-4.4	-	-	-	-	-
소매판매	전기대비, %	-	-	-	-6.4	6.5	-0.7	-	1.7	-1.0	-0.9	-
	전년동기대비, %	4.3	2.4	-	-2.9	1.9	1.8	-	4.4	-0.1	-1.5	-
소비자심리지수	기간평균, 지수	103.3	98.3	98.3	93.2	76.7	83.9	83.9	79.4	91.6	97.9	89.8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만명	9.7	30.1	-	28.8	-40.7	-31.4	-	-39.2	-42.1	-27.4	-
실업률(SA)	%	3.8	3.8	-	3.7	4.2	3.8	-	3.9	4.2	4.1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1.5	0.4	0.4	1.2	-0.1	0.6	0.4	1.0	0.1	0.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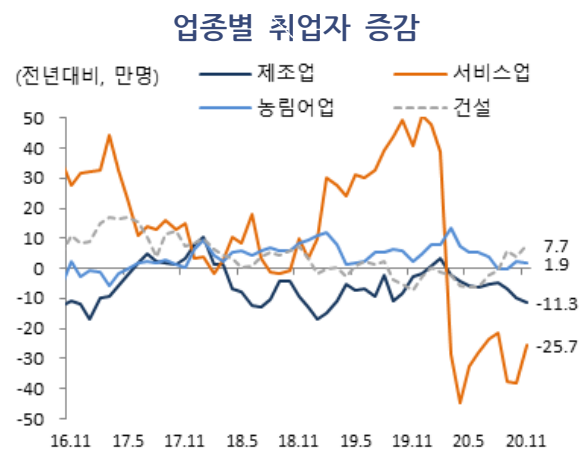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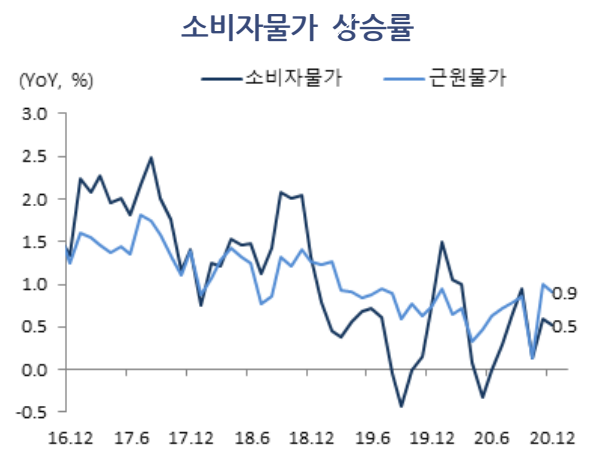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4 | 건설·부동산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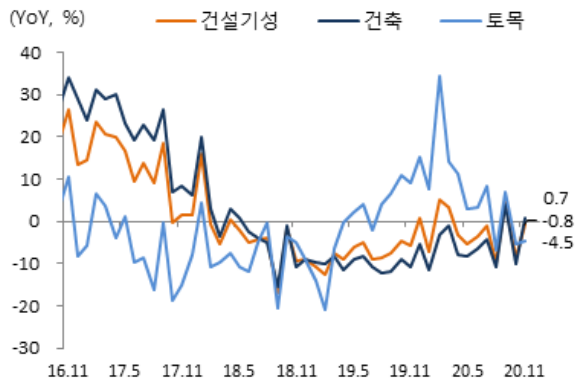
- 11월 건설기성은 토목(-4.0%)은 감소하였나,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4.6%) 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2.1% 증가
 - 건설수주는 주택·공장 등 건축과 발전·통신 등 토목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30.0% 증가
- 12월 주택매매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세를 지속
 - 수도권(+1.29%)은 신규분양 감소와 전세수급 불안으로 상승세를 유지
 - 5개 광역시(+1.93%)는 거주여건이 양호하거나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예: 부산, 대구)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
 - 기타지방(+0.91%)은 세종이 입주물량 감소, 국회 이전 이슈로 상승세가 지속 되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로 지방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상승
- 11월 주택매매거래(11.7만호)는 전세매물 부족으로 임차수요가 매수세로 전환되고, 신용대출 규제 강화 전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로 급증
 - *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11.30일 시행) 이전에 선수요가 급증하여 11월 은행 가계대출이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전월대비 +13.6조억원)으로 증가

주요 건설·부동산시장 지표

항목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1/4	2/4	3/4	4/4	20.9월	10월	11월	12월
GDP 건설투자	전기대비, %	-	-	-	0.5	-1.5	-7.3	-	-	-	-	-
	전년동기대비, %	-4.6	-2.5	-	4.2	-0.1	-1.0	-	-	-	-	-
건설기성(불변)	전기대비, %	-	-	-	4.1	-4.6	-3.6	-	5.2	0.0	2.1	-
	전년동기대비, %	-4.2	-6.9	-	0.3	-4.1	-1.6	-	4.9	-8.7	-0.8	-
건설수주(경상)	전년동기대비, %	0.2	6.2	-	1.7	21.7	36.2	-	8.4	-7.4	30.0	-
주택매매가격	전기말대비, %	3.16	0.24	8.35	1.29	0.85	2.47	3.50	0.80	0.67	1.43	1.36
수도권	전기말대비, %	5.97	1.28	10.57	1.86	1.17	3.49	3.68	1.07	0.81	1.53	1.29
5개 광역시	전기말대비, %	1.11	0.44	7.84	1.07	0.72	1.40	4.49	0.53	0.65	1.85	1.93
기타 지방	전기말대비, %	-1.71	-2.49	3.27	0.08	0.18	1.07	1.92	0.37	0.31	0.69	0.91
주택매매거래	월평균, 만호	7.1	6.7	-	10.8	9.9	10.3	-	8.2	9.3	1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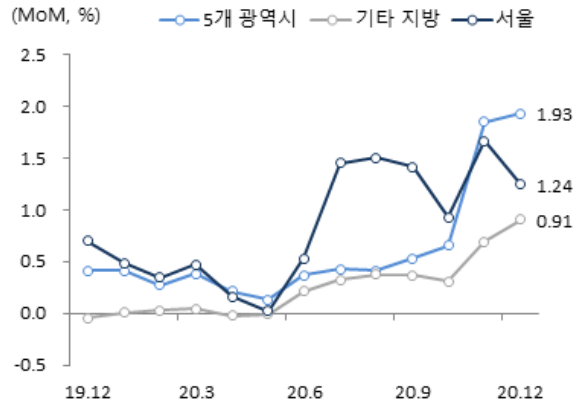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공종별 건설기성 증가율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자료: 국민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전월대비, %)

	전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5개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지방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서귀포
2019-12-15	0.35	0.48	0.70	0.39	0.11	0.41	0.38	0.28	0.05	1.19	0.23	-0.05	-0.23	-0.04	0.00	-0.12	0.03	-0.12	0.06	-0.18
2020-01-15	0.35	0.46	0.48	0.51	0.21	0.42	0.14	0.40	0.21	1.39	0.25	0.01	-0.19	-0.06	0.11	-0.02	0.06	-0.07	-0.07	-0.10
2020-02-15	0.37	0.55	0.35	0.78	0.35	0.27	0.09	0.27	0.11	0.84	0.27	0.03	-0.13	-0.03	0.17	-0.07	-0.01	-0.11	-0.01	-0.08
2020-03-15	0.56	0.84	0.47	1.12	0.97	0.38	0.08	0.22	0.33	1.31	0.44	0.04	-0.13	0.02	0.14	-0.08	-0.09	-0.05	-0.03	-0.17
2020-04-15	0.23	0.33	0.16	0.39	0.66	0.22	0.05	0.13	0.20	0.78	0.16	-0.02	-0.06	-0.03	0.01	-0.01	-0.06	-0.14	0.00	-0.07
2020-05-15	0.14	0.20	0.02	0.28	0.42	0.14	-0.01	0.08	0.30	0.41	0.09	-0.01	-0.15	0.02	0.13	0.01	-0.02	-0.09	-0.05	-0.11
2020-06-15	0.48	0.64	0.53	0.77	0.53	0.37	0.06	0.47	0.13	1.19	0.28	0.21	-0.08	1.08	0.16	-0.04	0.06	0.17	0.04	-0.47
2020-07-15	0.88	1.29	1.45	1.34	0.64	0.43	0.35	0.55	0.01	0.89	0.33	0.32	0.13	0.17	0.32	0.06	0.44	0.27	0.26	-0.28
2020-08-15	0.78	1.09	1.50	0.93	0.44	0.41	0.34	0.71	0.04	0.52	0.32	0.37	0.09	0.06	0.12	0.04	0.24	0.16	0.28	-0.05
2020-09-15	0.80	1.07	1.42	0.98	0.32	0.53	0.41	0.90	0.05	0.73	0.47	0.37	0.15	-0.06	0.26	0.11	0.19	0.20	0.24	0.00
2020-10-15	0.67	0.81	0.93	0.76	0.61	0.65	0.68	0.99	0.03	0.79	0.45	0.31	0.07	0.17	0.15	-0.04	0.93	0.06	0.21	-0.01
2020-11-15	1.43	1.53	1.66	1.64	0.72	1.85	2.36	1.91	1.12	1.51	1.61	0.69	0.45	-0.04	0.58	0.21	-0.17	0.73	0.93	3.35
2020-12-15	1.36	1.29	1.24	1.51	0.65	1.93	2.13	2.36	1.20	1.03	2.61	0.91	0.43	0.54	0.86	0.50	0.48	1.19	1.01	1.12

자료: 국민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